

불안과 우울척도에 의한 근로여성과 여대생의 정신건강 평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연 규 율

=Abstract=

Evaluation on the Mental Health Status of Female Industrial Workers and Female College Students by Anxiety and Depression Scale

Kyu Wol Yun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The author measured the mental health status of 204 female industrial workers from March 1st, 1988 to June 30th, 1988 using Zung's S.A.S (self-rating anxiety scale) and S.D.S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nd compared the results with those of 208 female college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s of total anxiety and depression scores between the two groups ($p < 0.01$).

2) The anxiety scores in items of insomnia ($p < 0.001$), restlessness ($p < 0.001$), dyspnea, apprehension, face flushing and the depression scores in items of decreased libido, hopelessness, personal devaluation, dissatisfaction ($p < 0.001$), emptiness were relatively high in female industrial workers.

3) As to the subjects who got above 50 scores in the distribution of anxiety and depression scores, the number of female industrial workers was more than that of female college students.

4) As to the female industrial workers, the younger ones, the higher scores in anxiety. The ones without parents, lodgers, or buddhists were higher in anxiety and depression scores. The older ones, catholics, or the ones with 7 to 9 years in the duration of employment were higher in depression scores. As to the female college students, the older ones, the ones without both parents, buddhists, the ones lodging in the relatives, or the students majoring on music, fine arts, physical education were higher in anxiety and depression scores.

서 론

불안과 우울은 정신과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경험되는 증상의 하나이며, 또한 경하게는 건강한 사람에서도 때때로 나타날 수 있는 정서반응이다¹⁾²⁾.

정신역동적으로 불안은 자기보존을 위한 생물학적

* 본 연구는 1988년도 한국생활과학연구원 연구비 지급에 의한 것임.

반응 혹은 억압된 내적욕구가 의식세계로 표출되려는 경우에 나타나는 반응³⁾으로 초기에는 의욕을 증진시키나 후기에는 역으로 수행력을 약화시킨다⁴⁾.

임상적 측면에서 보면 이런 불안은 조기 성장과정에서 발생된 후 생활사를 통해 다양한 환경적 요인 및 스트레스에 의해 강화되어 정신장애의 중심요소가 된다.

또한 우울은 일상생활을 통해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정신현상중의 하나로 우울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질병으로 간과되어 나타나는 수가 많다⁵⁾. 따라서 불안과 우울의 진단기준을 정하고 그 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여 주관적인 정동상태로 객관화하는 것은 정신과 영역에서 진단,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점차적인 산업화와 더불어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각 산업장마다 청소년 및 여성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⁶⁾. 따라서 이들 근로자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많은 연구도 증가되고 있다^{7,8)}.

이에 저자는 이전의 연구들을 토대로 특별히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은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신건강도를 평가하여 조기에 대책을 수립해주는 것이 작업능률화 및 정신건강상 중요하다고 여겨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1988년 3월1일부터 동년 6월30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근로여성기초 및 중급교양강좌에 수강중인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223명에게 설문지를 주어 조사한 후 대답이 불확실하거나 무성의한 설문지 15매(7.21%)를 제외한 나머지 208명만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비교하기 위해 이화여대 모교양과정시간에 등록한 여대생 239명을 대조군으로 하여 이들에게도 설문지를 주어 조사한 후 답안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무성의한 설문지 29매(12.13%)를 제외한 210명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 방법

설문지는 Zung이 고안한 자가평가 불안척도(Self-Rating Anxiety Scale, S.A.S)^{7,9,10)}와 자가평가 우울척도

(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11,12,13)}를 사용하였다. S.A.S와 S.D.S는 각각 20문항으로 조사대상자가 다양한 불안 및 우울증상을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네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한 설문지는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 부호화한 후 카드에 친공하여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고 각 요인별, 유의차는 변량분석(ANOVA)을 적용하고 각 군간의 비교에는 t검증을 시행하였다.

조사결과

1. 총 S.A.S 득점 및 항목별 성적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안척도로 평가한 근로 여성의 총점은 38.91 ± 5.38 , 여대생은 37.46 ± 4.86 으로 양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항목별 성적중 근로여성이 높이 평가한 항목은 불면(insomnia), 안절부절(restlessness), 호흡곤란(dyspnea), 우려(apprehension), 적면(facial flushing)의 순으로 이들중 불면($P < 0.001$), 안절부절($P < 0.001$)항의 성적이 여대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여대생이 높게 평가한 항목은 호흡곤란, 불면, 안절부절, 우려, 적면등으로 근로여성과 동일한 내용이나 점수는 상호 비교결과 유의하게 낮았다.

또 근로여성이 낮게 평가한 항목은 최하위부터 졸도감(faintness), 진전(tremors), 이상감각(paresthesias), 정신적 붕괴(mental disintegration), 현훈(dizziness)이었고 여대생은 졸도감, 진전, 이상감각, 정신적 붕괴, 악몽(nightmare)의 순으로 그 내용이 거의 일치되었다.

2. 총 S.D.S 득점 및 항목별 성적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울척도로 평가한 근로 여성의 총점은 42.74 ± 5.46 , 여대생은 41.62 ± 4.99 로 양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항목별 성적중 근로여성이 높이 평가한 항목은 식욕감퇴(decreased appetite), 절망감(hopelessness), 개인의 가치저하(personal devaluation), 불만족(dissatisfaction), 공허감(emptiness)의 순이었고 이들중 불만족($P < 0.001$) 항목이 여대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외에도 여대생보다 높은 항목은 정신운동지연(psy-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scores of Zung's self-rating anxiety scale(SAS) by female industrial workers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tem	Industrial workers	College students
	Mean± SD	Mean± SD
1. Anxiousness	2.13± 0.79	3.10± 0.76
2. Fear	1.88± 0.70	1.90± 0.79
3. Panic	1.86± 0.80	1.85± 0.74
4. Mental Disintegration	1.46± 0.67	1.43± 0.65
5. Apprehension	2.39± 0.97	2.25± 0.86
6. Tremors	1.38± 0.60	1.32± 0.61
7. Bodyaches & pains	2.06± 0.78	2.03± 0.87
8. Fatigue	2.00± 0.94	2.00± 0.84
9. Restlessness	** 2.76± 1.00	2.40± 0.86
10. Palpitation	1.75± 0.74	1.69± 0.71
11. Dizziness	1.51± 0.74	1.55± 0.73
12. Faintness	1.27± 0.58	1.32± 0.60
13. Dyspnea	2.58± 1.09	2.50± 1.13
14. Paresthesias	1.42± 0.70	1.39± 0.64
15. Indigestion	1.83± 0.94	1.67± 0.77
16. Urinary Frequency	1.86± 0.96	1.81± 0.88
17. Sweating	1.96± 1.20	1.98± 1.16
18. Face Flushing	2.20± 0.93	2.19± 0.96
19. Insomnia	** 2.97± 1.13	2.50± 1.11
20. Nightmare	1.61± 0.75	1.50± 0.67
Total	*38.91± 5.38	37.46± 4.86

SD : Standard Deviation * : p<0.01 ** : p<0.001

chomotor retardation)(P<0.001), 우유부단(indecisiveness)(P<0.001), 변비(constipation)(P<0.001), 주간감정변동(Diurnal variation)(P<0.05)이었다.

여대생이 높이 평가한 항목은 절망감, 식욕감퇴, 개인의 가치저하, 공허감, 성욕감퇴로 근로여성과 동일한 내용이 많았고 근로여성보다 유의하게 높은 항목은 체중감소(weight loss)(P<0.001), 피로(fatigue)(P<0.01), 우울감정(depressed affect)(P<0.05), 수면장애(sleep disturbance)(P<0.01)이었다.

한편, 근로여성이 가장 낮게 평가한 항목은 자살의도(suicidal rumination), 체중감소, 수면장애, 정신운동 흥분(psychomotor agitation), 울음(crying spells)이었고 여대생은 자살의도, 체중감소, 정신운동 흥분, 수면

장애, 변비로 근로여성과 동일한 내용이 많았다.

3. S.A.S 성적과 S.D.S 성적의 분포

1) S.A.S 성적 분포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근로여성, 여대생 각각의 불안성적 분포는 31-40점이 57.21%, 69.05%, 41-50점이 36.06%, 25.71%, 51-60점이 5.77%, 2.86%, 21-30점이 0.96%, 2.38%의 순으로 나왔다.

2) S.D.S 성적 분포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근로여성, 여대생 각각의 우울성적 분포는 41-50점이 64.42%, 59.05%, 31-40점이 25%, 33.81%, 51-60점이 10.10%, 7.14%, 61-70점이 0.48%, 0%의 순으로 나왔다.

4. 사회 정신의학적 요인 평가

은 표 4와 같다.

1) 연령별 성적

연령에 따른 근로여성과 여대생의 불안과 우울성적

불안성적을 보면 근로여성은 18세에서 20세군이, 여대생은 24세에서 26세군이 가장 점수가 높고 21세에서 23세군의 근로여성이 여대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scores of Zung's self-rating depression scale(SDS) by female industrial workers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tem	Industrial workers	College students
	Mean± SD	Mean± SD
1. Depressed affect	2.00± 0.61	2.15± 0.59
2. Diurnal variation	*2.25± 0.99	2.04± 0.90
3. Crying spells	1.88± 0.63	1.92± 0.65
4. Sleep disturbance	1.47± 0.70	*1.65± 0.79
5. Decreased appetite	2.89± 1.17	2.70± 1.14
6. Decreased libido	2.42± 0.80	2.51± 0.79
7. Weight loss	1.37± 0.66	***1.60± 0.77
8. Constipation	**2.00± 1.08	1.76± 0.99
9. Tachycardia	1.94± 0.79	1.87± 0.81
10. Fatigue	2.26± 0.85	**2.45± 0.80
11. Confusion	2.03± 0.93	1.90± 0.88
12. Psychomotor retardation	***2.48± 1.05	2.03± 0.90
13. Psychomotor agitation	1.50± 0.70	1.61± 0.72
14. Hopelessness	2.71± 1.03	2.73± 0.97
15. Irritability	2.09± 0.83	2.14± 0.80
16. Indisiveness	***2.29± 1.09	1.96± 0.87
17. Personal devaluation	2.68± 0.93	2.61± 0.90
18. Emptiness	2.54± 0.92	2.51± 0.93
19. Suicidal rumination	1.13± 0.42	1.13± 0.37
20. Dissatisfaction	***2.66± 1.05	2.31± 0.91
Total	**42.74± 5.46	41.62± 4.99

SD ; Standard Deviation * : p<0.05 ** : p<0.01 *** : p<0.001

Table 3. Level of self-rating anxiety scale(SAS) and self-rating depression scale(SDS) in female industrial workers and female college students

Level of scores	SAS		SDS	
	Industrial workers	College students	Industrial workers	College students
	NO(%)	NO(%)	No(%)	No(%)
21-30	2 (0.96)	5 (2.38)	-	-
31-40	119(57.21)	145(69.05)	52(25.00)	71(33.81)
41-50	75(36.06)	54(25.71)	134(64.42)	124(59.05)
51-60	12 (5.77)	6 (2.86)	21(10.10)	15(7.14)
61-70	-	-	1 (0.48)	-

점수를 보였다($P<0.005$). 한편 우울성적은 근로여성, 여대생 모두 24세에서 26세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2) 부모유무별 성적

표 4에서 보는 바와같이 근로여성, 여대생 모두 부모 사망군에서 불안, 우울 점수가 높았다. 근로여성과 여대생 두군 비교시엔 부모생존군에서 근로여성의 불안 점수가 여대생보다 유의하게 높았고($P<0.005$) 부친 사망군에서 근로여성의 우울점수가 여대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P<0.005$).

3) 주거 형태별 성적

근로여성과 여대생의 현 주거형태별 성적은 다음과 같다(표 4).

먼저 불안성적을 보면 근로여성은 하숙하는 경우, 여대생은 친척집 거주인 경우 불안점수가 가장 높았고 양 군 비교시엔 하숙($P<0.005$), 자택($P<0.005$)의 경우 근로여성의 점수가 여대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우울성적은 근로여성은 하숙, 여대생은 자취하는 경우 가장 점수가 높았고 양 군 비교시 유의차가 없었다.

Table 4. Scores of Zung's self-rating anxiety scale(SAS) and self-rating depression scale(SDS) in female industrial workers & female college students by various psychosocial factors

Factors	Industrial workers			College students		
	No. (%)	SAS Mean(SD)	SDS Mean(SD)	No. (%)	SAS Mean(SD)	SDS Mean(SD)
Age(Year)						
18-20	4(1.92)	40.75(9.32)	42.00(0.81)	87(41.43)	37.37(4.30)	41.20(5.43)
21-23	42(20.19)	*39.11(5.40)	42.80(5.62)	103(49.05)	37.17(4.57)	41.96(4.80)
24-26	99(47.60)	39.62(5.94)	43.03(5.57)	16(7.62)	39.75(8.04)	42.62(3.28)
over 27	63(30.29)	37.55(3.81)	42.30(5.39)	4(1.90)	39.25(7.27)	38.25(4.71)
Parental Loss						
Presence of both parents	150(72.12)	*38.56(5.04)	42.73(5.58)	198(94.29)	37.48(4.87)	41.60(4.99)
Father loss	46(22.12)	40.26(6.49)	*42.82(5.38)	11(5.24)	36.81(4.89)	41.45(5.06)
Mother loss	7(3.37)	36.14(4.05)	41.71(5.15)	0(0.00)	-	-
Loss of both parents	5(2.40)	41.20(3.03)	43.80(3.83)	1(0.48)	41.00	48.00
Residences						
Home	146(70.19)	*38.74(4.99)	42.58(5.51)	181(86.19)	37.56(5.08)	41.57(4.97)
Lodge	4(1.92)	*45.25(6.65)	44.00(2.58)	5(2.38)	34.60(4.09)	39.00(2.94)
Relatives	16(7.69)	39.81(3.97)	42.06(5.90)	8(3.81)	38.62(3.29)	42.25(5.67)
Domitory	1(0.48)	34.00	43.00	8(3.81)	36.50(1.92)	42.00(4.42)
Others	41(19.71)	38.68(6.73)	43.46(5.44)	8(3.81)	36.75(2.65)	43.50(4.62)
Religion						
Protestant	71(34.13)	39.14(5.77)	42.21(5.61)	69(32.86)	37.88(4.81)	42.05(5.46)
Catholic	28(13.46)	37.10(4.91)	**44.39(4.59)	36(17.14)	37.61(3.88)	41.19(3.96)
Buddhism	15(7.21)	40.06(5.27)	40.93(4.84)	14(6.67)	38.07(7.48)	42.14(3.89)
Others	1(0.48)	34.00	43.00	1(0.48)	34.00	40.00
None	93(44.71)	**39.16(5.19)	42.18(5.61)	90(42.86)	37.03(4.81)	41.43(5.19)

SD : Standard Deviation * : $p<0.05$ ** : $p<0.01$

4) 종교별 성적

표 4에서 보는 바와같이 불안성적은 근로여성, 여대생 모두 불교를 믿는 경우 점수가 가장 높았고 양군 비교시엔 무종교군에서 근로여성의 불안점수가 여대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1$). 한편, 우울성적은 근로여성은 카톨릭, 여대생은 불교를 믿는 경우 점수가 높았고 양군 비교시엔 카톨릭을 믿는 근로여성의 우울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5) 학력별 성적

근로여성 대부분의 학력이 고졸이므로 학력별로 유의차를 비교할 수 없었으나 불안성적에서 전문대졸이 점수가 약간 높았다(표 5).

6) 근무연수별 성적

불안성적을 보면 근무연수별 성적사이에 유의차가 없었으나 우울성적에서는 7년에서 9년간 근무한 군이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P<0.05$)(표 5).

Table 5. Scores of Zung's self-rating anxiety scale(SAS) and self-rating depression scale(SDS) in female industrial workers by education and duration of employment

Factors	No(%)	SAS Mean(SD)	SDS Mean(SD)
Education			
High school	203(97.60)	38.89(5.28)	42.74(5.45)
College	5(2.40)	40.00(9.56)	42.60(6.65)
Duration of employment			
1-3Yrs	42(20.19)	39.76(6.45)	43.00(5.38)
4-6Yrs	110(52.88)	39.08(5.29)	42.00(5.32)
7-9Yrs	35(16.83)	38.77(4.77)	*45.25(5.33)
10-12Yrs	16(7.69)	36.81(4.36)	41.12(6.21)
13-15Yrs	5(2.40)	36.00(2.73)	40.20(2.58)

SD : Standard Deviation * : $p<0.05$

Table 6. Scores of Zung's self-rating anxiety scale(SAS) and self-rating depression scale(SDS) in female college students by school year and course of study

Factors	No(%)	SAS Mean(SD)	SDS Mean(SD)
School Year			
Fresh	46(21.90)	37.00(4.17)	41.30(5.51)
Sophomore	56(26.67)	37.16(4.26)	
Junior	50(23.81)	37.52(5.83)	41.64(4.73)
Senior	50(23.81)	38.50(5.19)	42.78(4.59)
Postgraduate	8(3.81)	35.50(3.16)	39.75(4.02)
Course of study			
Liberal art and			
Social sence	147(70.00)	36.70(4.16)	41.51(5.17)
Natural science	16(7.62)	37.18(3.72)	41.56(4.01)
Music, Fine arts, physical education	47(22.38)	*39.93(6.31)	42.02(4.76)

SD : Standard Deviation * : $p<0.01$

7) 학년별 성적

여대생의 학년별에 따른 불안성적과 우울성적은 모두 Senior가 비교적 점수가 높았으나 각 군간에 유의차는 없었다(표 6).

8) 학과별 성적

여대생의 학과별 불안성적과 우울성적은 모두 예·체능계열 학생의 점수가 높은 편이었고 특히 불안성적이 유의하게 높았다($P<0.01$) (표 6).

고 찰

본 조사결과 불안 및 우울척도로 평가한 근로여성과 여대생의 총점은 근로여성의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P<0.01$).

이 결과는 이¹⁴⁾, 박¹⁵⁾이 조사한 일반 여대생의 점수와, 백¹⁶⁾이 일반 직장인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점수보다는 높게 나왔으나 왕¹¹⁾, 송¹²⁾, Zung¹⁷⁾이 조사한 일반 정상인 여자군과 박⁸⁾, 정¹⁸⁾이 일반 산업장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점수보다는 낮았다.

같은 근로여성이라도 일반 산업공단에서 육체노동을 하는 여성 근로자보다 불안 및 우울점수가 낮았던 것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근로여성은 연령범위가 주로 20대초반이며, 고졸이상의 학력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근로여성 학생으로, 선택된 여성이라는 점때문으로 생각된다.

불안척도의 항목별 성적중 근로여성성이 높지 평가한 항목은 불면, 안절부절, 호흡곤란, 우려, 적면등으로 여대생의 불안척도 항목과 동일한 내용으로 순서만 달랐고 이⁷⁾, 왕¹¹⁾, 정¹⁸⁾이 조사한 항목과도 동일한 내용이었다. 단 근로여성의 경우 불면($P<0.001$), 안절부절($P<0.001$) 항목이 유의하게 높았던 점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 결과는 박⁸⁾이 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일치되었다.

또 불안척도의 하위성적 역시 양 군에서 공통적으로 낮은 항목은 졸도감, 진전, 이상감각, 정신적 붕괴, 현훈 등이었는데 내용상 왕¹¹⁾, 정¹⁸⁾이 조사한 항목과 일치되었다.

한편 우울척도의 항목별 점수가 높은 순위는 양 군 모두 식욕감퇴, 절망감, 개인의 가치저하, 불만족, 공허감의 순으로 이 중 근로여성의 불만족($P<0.001$) 항목이 현저하게 높았고 이 또한 박⁸⁾의 조사결과와

일치되었다. 낮은 항목은 양군 모두 자살의도, 체중감소, 수면장애, 정신운동흥분, 울음 및 변비등으로 송¹²⁾, 정¹⁸⁾의 보고와 비교적 같은 내용이었다.

Zung¹⁹⁾은 우울증의 기준을 어디라고 지적하지는 않았으나 외래 및 입원환자에서 불안 및 우울척도 점수 50점이상을 경도에서 중등도, 60점이상을 중등도에서 고도, 70점이상을 고도의 우울증으로 보고한 바 있는데 대체로 50점이상을 우울증이 증상화하는 기준으로 삼았을때²⁰⁾²¹⁾ 본 연구에서 근로여성은 불안 및 우울척도점수 50점이상이 각각 5.77%, 10.58%, 여대생은 2.86%, 7.14%로 근로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박⁸⁾(SDS 50점 이상; 여성 산업근로자 28.9%, 여자 대조군 6.7%)의 결과와 정¹⁸⁾(SAS 50점이상; 여성근로자 22.61%, 여대생 9.18%, SDS 50점이상; 여성근로자 32.77%, 여대생 21.99%)의 결과보다는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어 일반 산업장의 여성 근로자보다는 정상수준에 속하는 불안, 우울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조사에서 근로여성의 불안 및 우울항목의 특징을 불안신경증과 우울증의 신체증상에 대한 타 연구들²²⁾²³⁾²⁴⁾²⁵⁾²⁶⁾과 비교해 보면 빈도와 항목별에서 차이가 있으나 불면, 호흡곤란, 식욕감퇴등의 신체증상이 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의 불안, 우울성향이 신체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Gooding²⁷⁾에 의하면 연령이 젊은 근로자일수록 불안정하고 유동적이며 욕구가 많고 일상적인 체계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근로여성은 나이가 어릴수록, 여대생은 고학년일수록 불안점수가 높았다. 여대생이 학년이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불안점수가 높았던 것은 졸업후의 직장문제나 결혼문제, 부모로부터의 자립하려는 문제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McLean²⁸⁾은 사회경제적 상태와 스트레스반응과 정신질환과의 관계를 주장한 바 있고, 생활사건과 우울증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 중 자신의 거취가 안정되지 않고 가족과 떨어져 살 때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고²⁹⁾³⁰⁾³¹⁾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근로여성, 여대생 모두 하숙, 친척집 거주시, 양쪽 부모상실, 또는 한쪽 부모만 계실때 불안, 우울점수가 높게 나왔다.

Ancherson³²⁾은 우울증 환자의 우울증상은 종교적 내용보다는 사회적 계층이나 그의 다른 실패에 의한

죄책감때문에 오는 것으로 우울증과 종교와의 관계는 무관하다고 한 바 있고 정¹⁸⁾의 연구에서도 종교유무별 의의가 없음을 보고했는데 본 연구에서 카톨릭을 믿는 근로여성의 우울점수가 의의있게 높았다는 점이 차이가 있었다.

7년에서 9년간의 근무경력이 있는 근로여성의 우울 점수가 높았던 것은 이들이 직업상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승진을 한다거나, 창조적인 일을 부여받지 못하는 단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역할 모호성과 갈등이 초래되어 그 결과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자신감이 결여되면서 자존심이 저하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여대생의 경우 나이와 학력증가에 따라 불안, 우울점수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전공분야가 예·체능계일때 불안, 우울점수가 높았던 것은 이¹⁴⁾의 연구결과와 일치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근로여성, 여대생 모두 후기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반에 속하는 연령인 만큼 주체성 확립을 위해 많은 정신적 갈등을 겪게 되며 여러 욕구의 억압 및 사회적 압박감이 많은 시기이다³³⁾³⁴⁾³⁵⁾. 직장에서의 역할갈등, 역할의 모호성은 직업상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긴장이 따르게 되고 이에 따라 불안, 우울이 생기면 신체증상으로 나타나게 된다³⁶⁾. 따라서 정신건강을 유지하고 창조적 자기실현 및 성취감을 얻게끔 하여 직장에 잘 적응하고 노동에 만족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교 평생교육원에 등록된 근로여성의 정신건강상태는 일반 여대생보다 불안, 우울성향이 높게 나타난 바, 이것이 직업자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과도 관계가 있는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조사에서 연구대상자인 근로여성은 평생교육원에 학생으로서 등록된 비교적 지적수준이 높은 근로여성 학생이라는 점 때문에 이들이 전체 근로여성을 대표할 수는 없겠으며 여대생과의 비교에서 다소 무리가 있었으나,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공부하려는 근로여성의 불안 및 우울척도에 의한 정신건강 평가가 이들의 정신건강 예방 및 대책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결 론

1988년 3월1일부터 동년 6월30일까지 이화여대 평

생교육원 근로여성을 위한 기초 및 중급 교양강좌에 수강한 근로여성 204명과 동대학 모 교양과정 시간에 등록된 여대생 208명을 대상으로 Zung의 불안 및 우울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불안척도로 평가한 근로여성의 총점은 38.91 ± 5.38 , 여대생은 37.46 ± 4.86 으로 양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 < 0.01$), 우울척도로 평가한 근로여성의 총점은 42.74 ± 5.46 , 여대생은 41.62 ± 4.99 로 양군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1$).

2) 근로여성이 높이 평가한 불안척도 항목은 불면($P < 0.001$), 안절부절($P < 0.001$), 호흡곤란, 우려, 적면의 순이었고 우울척도 항목은 식욕감퇴, 절망감, 개인의 가치저하, 불만족($P < 0.001$), 공허감의 순이었다.

3) 50점대 이상의 불안성적 분포는 근로여성의 경우 5.77%, 여대생은 2.86%이었고 우울성적 분포는 근로여성의 경우 10.58%, 여대생은 7.14%로 나타났다.

4) 사회정신의학적 요인에 따르면 근로여성은 나이가 어릴수록 불안점수가 높았고 부모 모두 안 계실때, 하숙, 불교 믿는 경우엔 불안, 우울점수가 높았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카톨릭을 믿는 경우, 7년에서 9년간 근무한 경우엔 우울점수가 높았다. 한편 여대생은 나이가 많을수록, 부모 모두 안계실때, 불교를 믿는 경우, 친척집 거주, 예·체능계열의 여학생에서 불안, 우울 점수가 높았다.

References

- 1) Beck AT, Ward CH, Mendelsen M :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 Gen Psych* 1961 ; 4 : 561-571
- 2) King LJ : *The depressive syndrome, A Follow-up study of 130 professionals working overseas. AM J Psych* 1975 ; 132 : 635-640
- 3) Kolb LC and Brodie HK :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Philadelphia, WB Saunders Co* 1982 ; 137
- 4) Sharma S : *Manifest anxiety and school achievement of adolescents. J Clin Psychology* 1970 ; 14 : 403-407
- 5) Freedman AM, Kaplan HI, Sadock BJ : *Diagnosis and psychiatric symptoms of psychiatric disorders. in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 2nd ed Baltimore Williams and Wilkins Co* 1975 ; 811-812
- 6)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 청소년 백서. 서울 신일인쇄사

- 1981 ; 230-231
- 7) 이재광 : 근로청소년의 불안성향과 산업재해와의 상관관계. 신경정신의학 1980 ; 19(2)69-84
 - 8) 박종한 · 정종학 · 김정완 : 산업장 근로자의 정신건강도 측정. 최신의학 1981 ; 24(10) : 98-104
 - 9) Zung WWK : *A Rating Instrument of Anxiety Disorders. Psychosom* 1971 ; 12 : 371-379
 - 10) 왕성근 : 정신과 외래환자의 *self-rating anxiety scale*에 의한 불안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978 ; 17(2) : 179-191
 - 11) Zung WWK :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Arch Gen Psych* 1965 ; 12 : 63-70
 - 12) 송옥현 : 정신과 외래환자의 *The self-rating depression scale*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977 ; 16(1) : 84-94
 - 13) 양재근 : 정신과 환자의 자가평가 우울척도에 관한 조사. 신경정신의학 1982 ; 21(2) : 217-227
 - 14) 이종범 : 우울척도에 의한 대학 신입생의 정신건강 평가. 영남의대학술지 1986 ; 3(1) : 151-159
 - 15) 박형배 : 불안척도에 의한 대학 신입생의 정신건강 평가. 영남의대학술지 1986 ; 3(1) : 131-137
 - 16) 백인호 · 권영재 · 방승규 : 직업과 우울경향. 최신의학 1979 ; 22(4) : 11-18
 - 17) Zung WWK : *Depression in normal adult population. Psychosom* 1971 ; 12 : 164-167
 - 18) 정성덕 : 여성근로자와 여대생의 불안과 우울에 관한 조사. 신경정신의학 1983 ; 22(2) : 265-274
 - 19) Zung WWK : *Depression in the normal aged. Psychosom* 1967 ; 8 : 287-292
 - 20) Keeler MH, Tayler CI, Miller WC : *Are all recently detoxified alcoholics depressed ? AM J Psychiat* 1979 ; 136 : 586-588
 - 21) 전명숙 · 김용식 : 정신분열증 환자의 우울증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981 ; 20(1) : 84-93
 - 22) 이병운 · 송남옥 · 유영순 : 불안신경증 환자의 주소에 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1963 ; 4(2)57-59
 - 23) 김광일 : 우울증의 증후학적 연구. 제2편, 한국인 우울증 증상의 양상. 신경정신의학 1977 ; 16 : 46-52
 - 24) 민성길 · 김경희 : 우울증에서 보는 신체증상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978 ; 17(2) : 149-154
 - 25) 김명호 : 신경증 환자의 신체증상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981 ; 20(4) : 375-381
 - 26) Stoekle JD, Davison GE : *Bodily complaints and other symptoms of depressive reaction. JAMA* 1962 ; 180 : 134-139
 - 27) Gooding J : *Blue collar blues on the assembly line. Fortune* 1970 ; July
 - 28) McLean AA : *Occupational psychiatry. in Comprehensive Textbook of Psychiatry/3 HL Kaplan et al editors Baltimore Williams & Wilkins Co* 1980 ; 2915-2925
 - 29) Forrest AD, Fraser RM, Prist RD : *Environmental factors in depressive illness. Brit J Psychiat* 1965 ; 111 : 243-253
 - 30) Peykel ES : *Life event and depression. Arch Gen Psychiat* 1969 ; 21 : 753-760
 - 31) 고진부 : 우울증의 사회정신 의학적 연구(특히 우울증 발병전 상황을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1978 ; 7(3) : 295-302
 - 32) Ancheron P : *Depression, a Cambridge post-graduate cours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63 ; 83
 - 33) Erikson EH : *Childhood and Society. 2ne ed New York WW Norton* 1963 ; 255-258
 - 34) Weissman MM, Klerman GI : *Sex differences and the epidemiology of depression. Arch Gen Psychiat* 1977 ; 34 : 61-74
 - 35) Mogul KM : *Women in midlife, Decisions, Rewards and Conflicts related to work and careers. AM J Psychiat* 1979 ; 136 : (9) : 1139-1143
 - 36) French JRP, Caplan RD : *Psychosocial factors in coronary heart disease. Int Med* 1970 ; 39 : 383